

‘늦깎이 작가’의 물음... 후회없는 삶은 무엇인가

고희 앞두고 첫 장편 펴낸 원명희 작가

군대 경험에 상상력 가미 ‘나팔봉’
못다한 연극의 꿈... 소설로 형상화
희곡 작업 통해 연극 상연 계획

20세기 미국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시인 가운데 로버트 프로스트가 있다. 그의 시 ‘가지 않은 길’은 시대를 초월해 많은 이들이 애송하는 시다. ‘단풍이 든 숲속에 길이 두 갈래 있었습니...



아니었지요. 잘 아는 분야의 소재를 선택하다 보니 군대와 관련된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나팔봉”은 약 40년 전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가 토대가 됐다. “군대 경험을 살려 형상화를 했다”는 원 작가는 “책을 발간하고 지인들에게 선물을 했는데 다양한 반응을 들을 수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어 “책 선물만큼 어려운 선물이 없는 것 같다”며 “그럼에도 나름 재미있게 읽었다는 말을 들으면 글을 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혔다.

소설의 줄거리는 간단하면서도 드라마틱하다. 연극을 상정한 소설이기에 서사 구조가 뚜렷하고 극적 장치가 곳곳에 잘 배치돼 있다.

주인공 나팔봉은 배고픔을 면하고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목표다. ‘팔자가 붕을 만나라’는 뜻의 이름은, 아들만큼은 번듯하게 살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염원이 담겨 있다. 서울로 올라온 나팔봉은 친척의 소개로 회사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 인정을 받는다.

군 입대 후, 크리스마스 휴가를 나온 나팔봉은 뜻하지 않게 사건에 휘말린다. 배가 고과 동태 두 마리를 훔치게 되고 이 일로 영장까지 가게 된다. 나팔봉을 좋게 봤던 사장은 크게 실망을 하고 자신의 딸과

의 결혼도 취소한다. 나팔봉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고 결국 자신을 신고했던 사람을 복수하기로 결심한다.

“나팔봉은 열심히 살아왔지만 한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인물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대편의 인물도 ‘서리’나 다름없던 사소한 절도를 범의 심판대에까지 끌고 갔어야 했는지 의문도 들구요.”

원 작가는 “연극을 상정하고 쓴 소설이기에 사건 위주의, 대화체 위주의 작품이 됐다”고 한다. 단문 형식의 글은 스피드하고 압축적이다. 첫 소설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문장이 밀도가 있고 사건의 전개도 역동적이다.

“우리 시대에는 핫김에 일어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요즘의 중간소음 문제도 조금만 배려하면 아무 일 없는데 끔찍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든요.”

원 작가의 소설은 내년 연극으로 탄생할 전망이다. 현재 연출가를 섭외중이며 곧 극본으로 개작된다.

그는 “꿈이 없는 삶은 열정이 없다”는 신념으로 살아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첫 소설이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을 떨쳐내는 아름다운 결실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를 품은 남도의 젓줄

‘영산강문화제’ 27~29일 영산강문화관 일원

‘제1회 영산강문화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영산강문화관 일원에서 열린다. 영산강문화관(관장 장희정)이 올해 처음 기획한 이벤트로 영산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남도의 다양한 문화를 매년 분야별로 접근하고자 하는 문화행사다.



광주시 남구 송촌마을에 있는 신목.

시화, 종교, 문학, 건축 등 매년 다양한 주제와 시각으로 영산강의 인문학적 자원을 발굴해나갈 영산강문화제의 첫해인 올해 주제는 남도 문화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민속’이다. 행사는 전시, 강좌, 체험, 공연, 영화상영 등으로 구성된다.

문화관 2층 전시실에서 열리는 사진전의 주제는 ‘영산강의 신목(神木), 그리고 민속’이다. 광주시 남구 송촌마을, 영암군 서호면 금강리 금강마을, 담양읍 삼다리 당산나무 등 각 지역의 ‘신목(神木)과 농촌·어촌·놀이·의식 등 4가지 테마의 민속 사진이 전시된다.

서해속 남도학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서는 민속강좌(27일 오후 2시 문화관 3층 교수실)는 무등산 설화, 용소설화, 견훤과 왕건 등을 다루는 ‘영산강 일대의 설화’를 주제로 진행되며 김경수 향토지리연구소장은 ‘영산강의 포구와 장타’(28일 오후 2시)를 주제로 강연한다.

29일에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나린소리

가 진행하는 판소리 ‘얼씨구 한마당’과 극단 ‘문화예술공방 바람꽃’의 민속극 ‘배비장전’이 관객들을 만난다. 그밖에 ‘박물관이 살아있다: 무덤의 비밀’ 영화도 상영한다.

가족대형 줄다리기 대회(29일 오전 10시)도 흥미로운 이벤트며 문화장터에서는 역사, 짚장식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꽃송편, 쌀강정 등 민속음식도 맛볼 수 있다.

영산강 물줄기를 따라 형성된 남도의 문화와 자연을 근간으로 ‘영산강 문화’의 정체성을 특화시킨 문화콘텐츠 개발에 주력하는 영산강문화관에서는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희정 관장은 “영산강문화제는 전통문화의 대중적 소통의 일환으로써 유서 깊은 남도의 다양한 문화분야와 인문적 전통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승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1-335-0868. /김미은기자 mekim@

목소리 하나로 마음을 훔친다



대만 'Sirens'

한국·대만·일본 참가

‘아시아 아카펠라 페스티벌’

27~28일 광산문화회관 등

광주아카펠라협회는 28일 오후 6시 30분 광산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제2회 광주 아시아 아카펠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 3개국 아카펠라그룹 4팀이 모여 빛고를 아리랑, 대만 전통가곡, 일본음악의 변신사 등 각 나라의 특색 있는 노래들을 아카펠라로 들려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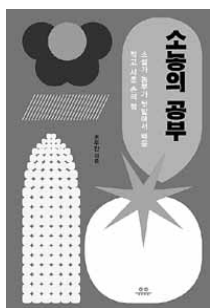
출연진은 한국 아카펠라 그룹 ‘E.X.I.T.’, ‘The Present’, 대만의 ‘Sirens’, 일본의 ‘Chameleon’으로 현재 각 나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들이다.

27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하늘공원, 28일 오후 3시 광산구 운남공원에서 각각 게릴라 콘서트가 진행되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아카펠라 공연도 준비돼 있다. /전은제기자 ej6621@kwangju.co.kr

텃밭 농사로 깨달은 사람살이 미덕

조두진 ‘소농의 공부’

귀농·귀촌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요즘, 도시의 삶이 버거울 때면 시골에서 농사짓는 삶을 꿈꾸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귀농과 귀촌을 결행하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렇다고 도시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집 가까운 곳 주말농장에서 텃밭을 가꿀 수 있고, 집 안에서 상자텃밭이나 화분텃밭을 이용



해 몇 가지 채소는 길러 먹을 수 있다. 수확량을 극대화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대신 자가 소비와 이웃 나눔을 목표로 농사를 짓는 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들의 텃밭 가꾸기는 노동인 동시에 여가가 되고, 그 과정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

산골 작은 텃밭에서 시작해 도시농부학교 교감으로 활동 중인 조두진 씨가 펴낸 ‘소농의 공부’(유유)는 자연과 사람, 하늘과 땅이 교감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현직 기자이자 소설가로 활동 중인 저자는 ‘소규모 농사에서 배우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경험

을 풀어낸다.

책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전문화와 세분화로 인류가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됐음에 감사하면서도 그로 인해 잃어버렸던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감사, 기쁨, 행복, 미안함, 배려와 같은 인간적 정서 말이다. 책에는 효율성과 경제성에서 한 발 비켜서서 불편을 생활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살이의 가치와 미덕이 오히려 담겨 있다.

저자는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며,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음도 알게 됐다”며 “자연과 사람, 사람과 동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가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h3>영광 전원주택 매매</h3> <p>전원주택 광주에서 30분</p> <p>즉시입주가 가능 최근 리모델링 완료</p> <p>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시세가 1억3천만 매가 9천8백</p> <p>직매 010-6670-9800</p>	<h3>수기동 상가 매매</h3> <p>천변로 전망최고 20층 중 6층</p> <p>45평 (주차완비) 고급시설 (리모델링 5천만투자)</p> <p>보 1천 월 60만</p> <p>시세가 1억 5천 매가 9천7백 (용5천)</p> <p>직매 010-6670-9800</p>	<h3>경매 (주)대신경매</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구 충장로 (4층 상가건물) 토지 215평 건물 157평 금남로 4가역 1분 (대형 주차장있음) 감정가 11억 → 최저가 8억8천 2) 광산구 월곡동 (상가주택) 토지 51평 건물 134평 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6천 3) 금남로 16층 (상가건물) 토지 488평, 건 6,000평 감정가 251억 → 최저가 140억 4) 동구 서석동 (주택) 토지 153평 건물 50평 서석초, 동구청 1분 (조선대 3분) 감정가 4억9천 → 최저가 4억9천 5) 나주 경현동 (4층 상가 주택) 토지 600평 건물 411평 금성산 산책로 위치 감정가 17억7천 → 최저가 9억9천 6) 전주시 완산구 전통 (3층 상가건물) 토지 268평 건물 528평 한옥마을 인근 (월세 1천만 이상 예상) 감정가 40억 → 최저가 40억 	<h3>경매교육</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 2)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 3) 경매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 <p>전문직업 컨설팅반 (프리 1년반)</p> <p>(무료제공) 경매교육, 컴퓨터, 책상</p> <p>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 직업으로 하실분 공동사무실 사용하실 분 010-6670-9800</p> <p>010-7384-7800 010-6670-9800</p>
---	--	---	---